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28호 (음력 3월 25일)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공실 상가 늘고 침체'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 번영 되찾나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음식점 등 30곳 폐업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주차공간 확충 시급"

광주의 핫플레이스이자 이색거리로 각광받아온 광주 펭귄마을이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줄고 상권이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만큼 동네 활성화를 위해 이목을 끌 만한 새로운 관광 컨텐츠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양림동 일반음식점(식당·카페·술집) 총 30곳이 폐업했다.

연도별 양림동 내 일반음식점 폐업 점포는 ▲2017년 5곳 ▲2018년 8곳 ▲2019년 9곳 ▲2020년 15곳 ▲2021년 12곳 ▲2022년 4월 현재 기준 3곳 등이다. 폐업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은 셈이다.

펭귄마을은 지난 2013년 양림동 어르신 4~5명이 고철 작품으로 노후 주택 골목길을 꾸며 탄생했다. 이후 남구가 지난 2019년부터 길목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양림동은 매년 수천~수만 명이 다녀갈 만큼 활성화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급감했다.

실제 양림동 내 근대가옥과 기독교 선교 역사를 둘러보는 관광객 수도 줄었다. 건축·선교투어 방문객수는 ▲2019년 1811명 ▲2020년 174명 ▲2021년 308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A씨는 "관광객 증가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떠나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4~5년 전에 휩쓸더니 지금은 공실률이 큰 문제"라며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끊겨 공실이 20% 정도 늘었고, 장사가 안 돼 권리금도 받지 않고 상가를 떠나는 상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펭귄마을에 입주한 공예촌을 활성화하고 상점 쿠폰 등 관광 컨텐츠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펭귄마을 공예거리에 입주한 작가 신모(40)씨는 "양림동이 관광지로 소문이 나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20년에 입점했지만 2년 간 판매 수익이 0에 가깝다"며 "작가 지원과 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페 직원 최모(28)씨는 "펭귄마을 내 벽화와 아기자기한 소품 외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맛집 스탬프·할인권 제공 등 행사를 벌여 관광객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자체가 양림동 내 주차장 홀짝제를 시행, 167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주민·상인·방문객들은 여전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한모(67)씨는 "상인,방문객,주민 차량이 한 데 섞여 주차난에 시달린다. 공영 주차장까지 가려면 5~10분은 걸어야 한다"며 "남은 부지 등을 매입해 동네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에서 관광객들이 거리를 구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에 186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라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만큼 매주 공예품 등을 파는 마켓도 열어 관광객을 모으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민주당 텃밭서 무소속 돌풍 부나… '공천 잡음' 역풍 촉각

광주·전남 무소속 출마 강행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천 잡음이 잇따르면서 낙마한 현직 기초단체장 등 유력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장성군수 공천에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는 무소속으로 징검다리 4선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유 군수는 최근 중앙당의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심을 배반한 민주당에 짓밟힌 장성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 통합과 중단없는 장성 발전을 위해 무소속 후보로 군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무안군수 후보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김산 현 군수 역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무안군수 후보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비대위의 상식과 도의에 어긋난 제명 처분으로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재심이 기각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서 청장은 "민주당 후보 경선 결과를 보고 무소속 출마 여부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무소속으로,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장흥군수와 고흥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에 조직력과 지역내 입지를 다져온 만큼 민주당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시끌시끌해 무소속 현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장흥군수 경선은 일부 예비후보들의 재심이 받아들여져 후보 선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와 함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간 대결구도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민주당과 무소속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

내일까지 전국 많은 비… '번개·돌풍' 동반

전라·제주 시작…내일 새벽 전국 확대

월요일인 25일 저녁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 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4일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25~26일은 우리나라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의해 남서쪽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영향으로 전국적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많은 강수량에 더해 천둥·번개, 지역에 따라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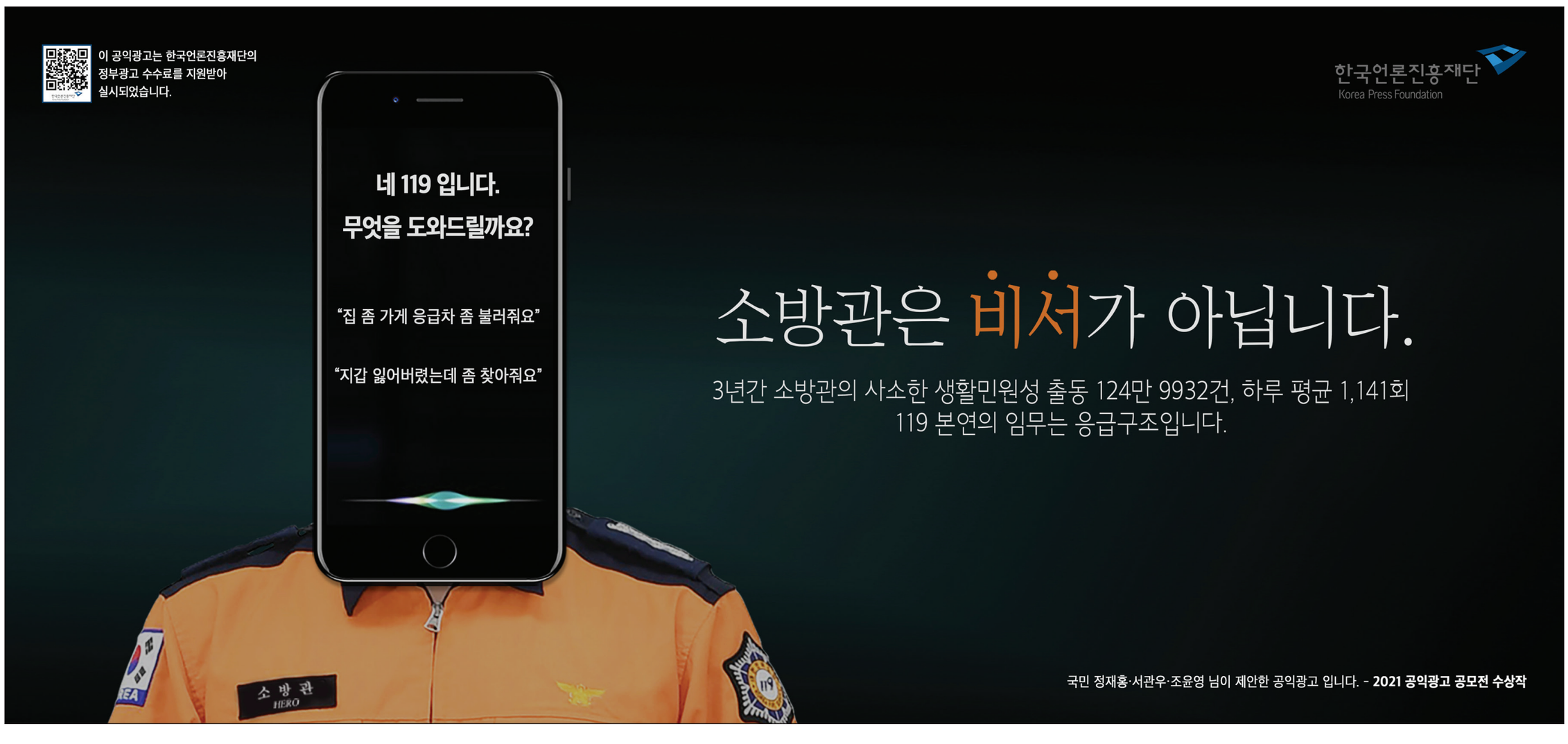
25일 저녁에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26일 새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전국에서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50~120㎜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북부에서 20~70㎜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5~40㎜ 등이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의 경우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 수준의 강수가 예상되고, 천둥·번개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지의 경우 최대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계곡이나 소하천, 저지대 등은 순간적으로 물이 범람하거나 침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6일 새벽을 전후해 제주도와 남해안의 대부분 지역 등에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호우특보와 강풍특보 발효가 예상된다. 남해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비가 그친 뒤 27일부터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씩 이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본부